

<신종우 : 항생제의 임상. 소아과 1958;1:100-4>를 읽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강진한

1958년 대한소아과학회지에 신종우(당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강사) 선생님의 의해 “항생제의 임상”이란 제목의 종설이 게재되었다. 동일 주제라 해도 50년이 지난 현재의 내용과는 현저히 다른 내용이었으나 항생제의 치료 원칙, 사용요법(병합요법), 감염 질환별 선택 요법, 이상반응(부작용)의 구성으로 기술된 형식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현재와 동일하였다. 또한 이 종설을 통해 50년 전 중요 감염 질환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감염을 전공하는 저자의 경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감염 질환에 사용되었던 항생제의 종류는 단순할 정도로 적은 점과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들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을 알 수 있었으나 결론에 있어 항생제의 선별 사용과 부작용에 유의하여야 하는 강조는 불변의 원칙임을 제삼 깨우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항생제 치료 원칙에 있어 최근의 소아 항균제 선택과 사용의 원칙은 1) 감염성 질환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정, 2) 감염성 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무슨 병원균에 의한 것인지를 판정, 3) 세균성 감염일 경우 어떤 항균제를 사용할 것인가 결정(항균제의 감수성 범위와 정도, 약물역동학적 측면과 실제 임상학적 효율성 및 독성과 부작용과 경비에 관한 사항의 고려), 4) 선택할 항균제의 용량, 투여 방법, 투여 횟수의 결정(감염부위에 치료 적정 농도 유지를 고려한 용량 결정과 감염 정도를 고려한 항균제 선택과 환자의 연령과 개별적 건강 특성을 고려한 투여 방법의 결정), 5) 항균제의 투여 기간 결정, 6) 투여 받을 환자의 면역상태 파악, 7) 실제 항균제 사용 후 치료 반응을 판정, 8) 사용 항균제에 의한 합병증내지는 부작용 발생에 관한 사항의 고려 등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1,2)} 구체적인 반면 이에 반해 이 당시에는 선별 선택, 조기 투여, 적기 투여, 내성 고려, 부작용 주의 등과 같은 개념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이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원칙에 상이한 점은 없는 것은 항생제의 사용 원칙은 시대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 원칙임을 제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사료된다.

항생제 종류와 병합요법에 있어 현재 소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베타 락탐계 항생제는 이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유일

한 항생제인 점이 가장 특이한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페니실린은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일부 감염 질환(선천성 매독, 류마티스 심근염 예방 요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병합요법은 이 당시에는 항생제 사용법의 가장 최신 사용법으로 대두된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항생제의 종류가 적은 상황에서 항생제의 사용법을 통해 효율적인 세균성 감염 치료를 극대화 시키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관점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항생물질이 다양하고 강력한 항생물질이 개발된 상황에서는 항생제의 병합요법은 2가지 이상의 세균에 의한 복합감염, 경험적 항생제 치료, 내성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결핵, 농농균 감염 등),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세균성 심근내막염, 면역결핍 환자의 세균성 감염) 등의 경우에만 권장하고 있다³⁾.

한편, 국내의 항균제 치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의 내성문제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항생제 치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1차 진료 단계에서부터 경구 항생제 치료의 제한⁴⁾ 및 2, 3차 진료 병원에서의 주사 항생제 치료의 제한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 당시에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거의 없어 항생제의 치료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항생제 치료의 대상 질환으로 이 당시에는 현재 국내에서 거의 소멸된 디프테리아감염이 중요한 감염 질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페니실린을 투여하여 급성기 단축, 합병증 감소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아 1950년대에 디프테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 현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백일해, 선천성 매독, 리켓치아 감염이 이 당시에는 중요한 감염 질환으로 항생제 사용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균성 폐렴에 있어 포도알균에 의한 폐렴도 중요한 호흡기 감염이었고,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대장균 감염도 중요한 세균성 감염 질환이었으며, 연쇄구균 감염 또한 흔한 감염 질환이었던 점을 보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한 현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강진한 : <신종우: 항생제의 임상. 소아과 1958;1:100-4>를 읽고

이와 같이 50년 전에도 항생제의 실제 임상이 중요하였던 것과 같이 현재에도 항생제의 실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중요성은 계속 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요 감염 질환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다양한 항생제의 개발이 이루어진 현 시대에도 대상 세균성 감염 질환 치료에 있어 항생제의 다양한 응용 및 활용의 중요성은 동일한 것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References

- 1) Sheila M. Hickey and George H. McCracken, Jr. Antibacterial therapeutic agents. in RD. Feigin., and JD. Cherry's Textbook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 4th ed. W. B. Saunders company. 1998;2614-48.
 - 2) Kang JH. Antibiotic treatment in pediatric primary care. J Korean Med Assoc 2004;47:1107-15.
 - 3) Kim JS. Empirical antimicrobial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J Korean Pediatr Soc 1997;40:1193-201.
 - 4) Oh SH. Careful choice of antimicrobial agents in primary pediatric care. J Korean Pediatr Soc 2000;43:455-62.
- 1) Sheila M. Hickey and George H. McCracken, Jr. Antibac-